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1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한마디가 나의 교육철학으로(적재적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조신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나돌며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과 아버지를 따라 일손 돕기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하여 집에 왔는데 그날도 다름없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무너진 돌담을 쌓을 생각으로 개울가의 돌을 리어커에 주워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담장 쌓기에 좋은 큰 돌만 챙겨서 왔는데,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 왈 “이 녀석아! 큰 돌만 주워 오면 어떻게 하니?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모난 돌, 자갈 등 다양하게 주워와야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냥 큰 돌들을 총총이 쌓으면 돌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담 쌓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큰 돌은 가장 아래에 깔고 중간중간에 보통 크기의 돌을 얻고 빈틈 사이사이에 자갈과 모난 돌을 채워 넣으니 완벽한 돌담이 완성되었습니다. 중간 돌, 작은 돌, 모난 돌, 자갈 등 모든 돌 들이 제각각 쓰임새가 있었으며 서로가 어우러져 지금까지도 50년 전의 튼튼한 돌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를 1등급으로 성장시킬 수 없듯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발한 상담 활동을 통하여 각각 아이들의 **꿈과 끼, 흥미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대학**에 진학하게 한다면 최고의 진로 진학 지도가 아닐까요? 저도 시간이 허락할때마다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2 情(정)나눔

●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정(情)을 나누며 사람 냄새나는 세상에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60이 다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아직 ○○○초코파이와 ○○제약 ○카스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과자와 음료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광고 문구 때문에 어디를 방문해도 초코파이와 ○카스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 초코파이나 ○카스를 한 개 주면 저는 그 사람을 영원히 좋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과자의 표지에 ‘情’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좋아하고, 이 음료는 광고 문구에 “젊은이! ○카스 한 병 먹고 하게나!” 이 문구들은 나눔이겠지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이겠지요. 저는 제가 앉아있는 교무실 앞을 누군가 지나가면 무조건 나가서 모시고 들어와 커피믹스라도 따뜻하게 한잔 대접합니다. 선생님도, 주무관님도, 청소하시는 여사님도, 당직주무관님도, 지킴이선생님도, 교장선생님도.....그 누구도 그냥 지나치게 보고 있지 않았습시다.

16년 동안의 친목회장 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인화와 정 나눔을 우리 가야고에도 실천**하여 경남의 모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감이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학생들의 웃는 얼굴로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 또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3

현실을 직시하고(대입 지도와 생활지도 역량 강화)

●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관심이 **대학 관련 진로 진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야고는 해마다 신입생들의 입학 성적이 상향되고 있으며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 지는 경향이 있지만 하위권도 많아 **학력 편차가 심한 편이라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심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우수한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됩니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편이라 진학관련 설명회, 담임과의 상담시간 확대, 입시 경험담의 공유,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을 대신하여 학교장 진로진학상담 시간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학교를 알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여 그 기금으로 우리 아이들 수도권 대학 탐방(**서울대학 도서관에 앉아 1시간 공부해 보기, 연세대 기숙사 하룻밤 잠자기, 경희대 캠퍼스 잔디에 누워보기** 등. 2박3일 일정)확대와 외국 선진지(예: **Ivy League 등 10박11일**) 탐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 발전기금의 일부를 할애하여 학력향상 학생 장학금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충심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브랜드를 완성해 주는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의 강사풀이 미비된 상태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직원과 지역인사의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외 민주시민교육, 생태환경미래교육, 시융합교육과정, 교교학점제, 탄소중립시범학교, 교과교실제 시행 등은 이미 김해가야고에서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 모범 사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직원들과 협의하여 계속 발전되게 추진하겠습니다.

4

다시 비상하는 으뜸! 김해 가야고등학교~

● 교육철학

- | | |
|-------------------------|----------------------------|
| 1.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 | 2. 서로 정(情)을 나눌 수 있는 인간 |
| 3.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간 | 4. 상식이 통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간 |

● 으뜸! 김해가야고를 비상시키기 위한 약속

한 개, 귀를 쫑긋 열고 **들**겠습니다.

두 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개, 그리고 **책임**하겠습니다.

네 개, 책상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학교를 알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겠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 아이들 수도권 대학 탐방(**서울대학 도서관에 앉아 1시간 공부해 보기, 연세대 기숙사 하룻밤 잠자기, 경희대 캠퍼스 잔디에 누워보기** 등)과 외국 선진지(예: **Ivy League** 등) 탐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상황을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그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놀자고 해도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즉, 아이들은 본만큼 알고, 아는 만큼 성장함을 경험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다섯 개, 학교에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교감선생님께 맡기고 팔장끼고 왔다 갔다 하는 교장이 아니라 최근 보아온 현직 교장선생님처럼 교감선생님과 업무를 나누어 학교 운영 전반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습니다.

여섯 개, 학교를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놀이터)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각종 학교 행사, 학교 규칙, 스포츠데이, 문화행사 등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장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의 놀이터)교사들의 감정 노동 코칭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업무능력 저하 UP! 프로그램, 직무에 대한 자기 불신 해소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놀이터)아직까지 학부모에게 학교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과감하게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학교행사 뿐만 아니라, 인근 마트에 가다가 들러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개, 친목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년간의 친목회장 경험을 살려서 분위기 좋은 학교, 교직원이 서로 도와주는 학교, 각 실마다 웃음이 넘치는 학교,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은 학교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개, 어머니회와 함께 **아버지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사에 대부분 어머니들이 참석하는 문화를 바꾸어 아버지도 자식의 교육과 양육에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 개,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학교 현안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과 함께 공유하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열 개, 성취 수준 미달 학생을 적극 구제하고,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심화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정년 4년 6개월, 어쩌면 요령껏 편안하게 지내다가 퇴직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해가야고 공모교장 공고문을 보자 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힘에 부칠 수도 있겠지요. 고뇌에 쌓여 긴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대학진학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지도, 교직원 친목활동을 통해 화목한 학교 문화 조성에 혼신을 다한 후 교직의 마침표를 찍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우리 아이’들 미래의 꿈을 키워줄 수 있고,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신의 능력만큼 공부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 그 과정에 선생님들도 즐겁고 학생도 행복한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정이 넘치는 학교, 다른 학교가 부러워하는 학교, 친목이 잘되는 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안아주는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이 웃으며 아이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의 남은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검은 연탄이 활활 타올라 붉게 물들고 하얗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